

##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희재<sup>1</sup>, 곽동철<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수료, <sup>2</sup>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중국경제통상학전공 조교수

# Analysis on the Impact of Corporate Succession and Old Companies on the Local Economy

Hee Jae Kim<sup>1</sup>, Dong Chul Kwak<sup>2\*</sup>

<sup>1</sup>Ph.D. Candidat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Chinese Business and Economics, Hannam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 기업승계, 장수기업,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 회귀분석

**Abstract** The average age of CEO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Korea is 58.8, and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regarding the support towards the succession companies. Government authorities are also operating a system to support the succession companies, and recently global support is also being demanded. In order to have justification over the support for succession companies, the fact that it greatly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gional economy must be acknowledged in advance.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corporate succession revitalization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through statis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the purpose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the study has referred to the databas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mall Business Recruitment Project” and the Korea Enterprise Data (KED), which can be the most differentiated aspect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 of the past.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shows that the old companies’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general companies in terms of sales, number of employees, assets, and operating profits·etc.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old companies (which lasted over 30 years) more than doubles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s (with less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sales, triples the number of employees, doubles the assets, and more than doubles the operating profit. Thus, it is seen that the contribution to the overall economy is significant. Additionall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old companies and th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e non-metropolitan area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metropolitan area in terms of the number of employees, assets, borrowings, and rent, which entails policy implications of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old companies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ggesting that further policies regarding corporate succession are required to support the old companies in the future.

**Key Words** : Corporate Succession, Old Company, Regional Economy Revitaliza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Empirical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Dong Chul Kwak(korea7659@hnu.kr)

Received June 13, 2022

Accepted September 20, 2022

Revised August 29, 2022

Published September 28, 2022

## 1. 서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2019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자가 경영 1세대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4.8%, 대표자 나이가 7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22.6%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업력과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중소기업연구원, 2018)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업승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승계를 기업성장모델로 확인하여,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구현을 위한 목표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꾸준한 성장모델’로서 기업승계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1]. 특히 명문 장수기업, 백년가계 등은 30년 이상 오랜 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꾸준히 성장하였으므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모범기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회공헌 모범 명문기업에 대한 특화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기존 우대제도의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자 간 경쟁 공공구매제도, R&D 지원 등으로 지원제도 우대조치 확대 검토 및 제도개선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기업승계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관련 전문가 자문, 인식 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백년가계 및 백년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승계 문제는 수도권-비수도권 문제 등과 연계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수도권은 혁신과 본사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기능이 집중되는 형태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다수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거래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청년층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고급 산업기술 인력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

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저기술 기능 인력 증가 등이 나타나 산업혁신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업의 이전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전국의 GRDP 대비 50%를 상회하던 지역의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2].

따라서 지역 위기와 지역 중소기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고유 특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거래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거래의 연속성 확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승계제도의 미비로 인해 창업 1세대 및 2세대 기업들은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할 유인이 부족하며, 현행 상속·증여세제 하에서 부담을 느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역 중소기업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수기업(또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과 매출액의 관점에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성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III장에는 기업승계의 사회·경제적 기여 실태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기업승계 및 장수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 기업 사례를 분석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업승계 및 장수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기업의 경영성과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영 외(2018)는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내 제약업종 가업승계기업 35개를 대상으로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 KOSPI 및 KOSDAQ 지수, 포트폴리오 수익률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승계 이후 장기성과가 대체로 존재하며, 승계가 누적될수록, 승계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성과 및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신상철(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업력 5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비장수기업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에서 30배 이상 크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4]. 또한, 배현(2013)의 연구에서는 부산 기반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액 규모가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반면, 조덕희(2019)는 장수기업의 장수요인 분석모형을 수립하여 장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기술혁신 선도, 시장 내 평판 및 신용도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한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장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경쟁력)가 평균적으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6]. 또한, 홍성철 외(2011)의 연구에서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와 KED(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여 PSM을 통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승계 이후 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가 단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승계 관련 과도한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취약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승계 직후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7].

다음으로 특정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장우 외(2010)는 4C (Continuity, Community, Connection, Command) 모델[8]을 기반으로 3대에 걸친 성공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술적 핵심역량 축적, 바람직한 경영철학 및 노하우의 대물림이라는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

다[9]. 한재훈(2013)의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3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의 전체 매출액과 지역내 총생산(GRDP)과 비교한 결과, 각 지역의 경제발전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경상도, 울산 등에서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및 지속성, 핵심역량, 보수적 재무전략,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승계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0]. 한편, 정후식(2008)의 연구에서는 일본 장수기업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장수기업의 역할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업승계는 일자리 창출·유지, 기술·노하우의 계승 및 발전, 영속기업으로의 성장 및 장수기업의 토대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 장수기업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로 지역 사회 및 일본경제의 고용창출 및 안정에 기여하고, 전통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켜 첨단기술로 승화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기업승계 기업은 성장성 및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1].

그 외에도 기업의 경쟁력 및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봉순 외(2017)에 따르면, 기업승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족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2]. 남영호(2007)는 거래소 상장 기업 대상 중 가족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가족기업의 경영성과나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사회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였다[13]. 그리고 조병선 외(2007)는 중소기업은 경영승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생산설비와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 및 전수 등이 가능하므로 기업승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4].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은 대체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창출, 기술 발전 등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기업승계의 사회·경제적 기여 실태

기업승계의 사회·경제적 기여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업력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 장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고용 창출 효과와 매출액 증대 효과 측면에서 업력을 기준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도권과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후에 광역시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나, 광역시도 중 기업통계 DB 부족으로 업력별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 장수기업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정의로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승계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경영 철학, 가치관, 네트워크, 경영노하우, 무형자산 및 고용 유지 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승계 대상에 따라 친족 내 승계, 친족외 승계, M&A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업을 장수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 설정에는 많은 이견이 있어 장수기업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짧은 산업화와 역사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중소기업청에서 장수기업의 기준을 업력 30년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해외에서 200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다.

#### 3.1 기업승계 현황 분석(요약)

기업승계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DB에서 활용 가능한 기업 403,691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대상 기업개요(21.6월말 기준) 및 재무제표(20년 결산 기준)를 활용했다.

본 분석에서 다른 기업의 주요특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단, 일부 특성변수에서는 결측치로 인해 합계 값이 차이가 있음). 전체 기업 특징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 42.0%, ‘도소매업’ 12.2%, 업력별로는 ‘10년 미만’ 기업이

54.8%, 종사자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54.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표자 특징에서는 남성 대표자가 87.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표 연령별로는 ‘70대’와 ‘60대’가 각각 36.1%, 3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1. Summary of Company and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	Representative(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Business Characteristics	business history	less than 10 years	61,688	18.9	58.8	15.2
		less than 20 years	69,043	21.2	58.8	14.2
		less than 30 years	36,415	11.2	60.3	23.7
		over 30 years	25,723	7.9	60.5	39.6
	top 10 sectors	manufacturing	68,841	21.1	59.4	18.9
		real estate	32,333	9.9	58.3	12.6
		wholesale and retail	30,363	9.3	58	16.6
		construction	17,197	5.3	58.4	16.6
		information communication	10,840	3.3	56.3	14.9
		transportation warehouse	7,896	2.4	58.8	19.8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7,849	2.4	57.5	14.4
		business rental service business	5,317	1.6	58.1	14.5
		lodging restaurant	3,062	0.9	59.4	18.2
		leisure-related service	2,981	0.9	58.1	17.5
	number of workers	less than 30 people	107,825	33.0	58.8	13.8
		less than 50 people	21,793	6.7	59.0	18.4
		less than 100 people	27,800	8.5	58.6	19.8
		over 100 people	35,431	10.9	58.2	21.3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sex	male	164,407	51.0	59.1
female			7,184	4.7	57.3	15.2
age		less than 50	25,483	7.8	45.6	15.5
		less than 60	72,127	22.1	56.0	15.4
		less than 70	66,371	20.3	63.7	17.3
		less than 80	17,966	5.5	73.3	20.6
		over 80	4,013	1.2	83.9	22.3
		Non-Capital Region				
business history	less than 10 years	49,716	15.2	57.4	5.3	
	less than 20 years	45,841	14.1	59.3	14.2	
	less than 30 years	24,257	7.4	60.4	23.7	
	over 30 years	13,587	4.2	60.2	39.2	
	top 10 sectors	manufacturing	68,185	20.9	59.5	16.9
real estate		15,972	4.9	57.3	7.5	
construction		14,970	4.6	58.3	16	
wholesale and retail		9,377	2.9	57.8	16.4	
transportation warehouse		5,204	1.6	61	20	
leisure-related service		3,615	1.1	59.3	13.2	
lodging restaurant		2,749	0.8	58.2	12.9	
business rental service business		2,313	0.7	57.8	10.2	
electricity gas supply		2,205	0.7	57.6	9.4	
water sewage recycling business		2,104	0.6	58.3	12	
number of workers	less than 30 people	70,930	21.8	58.5	11.8	
	less than 50 people	17,833	5.5	59.0	16.8	
	less than 100 people	21,959	6.7	59.2	18.5	
	over 100	22,619	6.9	59.6	21.3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sex	male	117,798	36.5	59.1	15.4
		female	9,696	3.0	58.4	13.2
	age	less than 50	17,659	5.4	45.3	14.8
		less than 60	44,269	13.6	55.1	13.9
		less than 70	51,446	15.8	63.7	15.7
		less than 80	12,857	3.9	73.2	18.0
		over 80s	2,370	0.7	83.7	21.8
Total	403,691	100.0	59.1	24.6		

3.2 항목별 기업승계 현황 분석

Table 2와 같이 CEO 평균 연령은 58.8세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8.7년)과 비수도권(58.9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9.0년)이 중견기업(57.8년) 보다 약 1.2세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제조업, 건설업, 예술 등 서비스업, 부동산·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평균 업력은 중견기업이 19.8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6.7년)이 비수도권(15.3년) 보다 약 1.4년 길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9.8년)이 중소기업(15.6년) 보다 약 4.1년 길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A. Age of CEO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188,303	59.1	58.7	16.7
large enterprise	7,027	2.2	58.4	15.5
middle market enterprise	25,646	8.0	57.5	20.0
small sized enterprise	155,630	48.8	59.0	16.2
non-capital region	130,561	40.9	58.9	15.3
large enterprise	3,655	1.1	58.3	13.5
middle market enterprise	14,051	4.4	58.3	19.4
small sized enterprise	112,855	35.4	59.0	14.8
Total	318,864	100.0	58.8	16.1

Table 2B. Age and Work History of CEO by Sectors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192,849	59.1	58.7	16.6
construction	17,197	5.3	59.4	16.6
mining	455	0.1	59.8	20.4
education service	966	0.3	56.6	12.8
finance and insurance	545	0.2	57.2	9.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595	0.2	60.0	16.8
wholesale and retail	30,353	9.3	58.0	16.6
real estate	32,333	9.9	58.3	12.6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5,317	1.6	58.1	14.5

rental service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1,513	0.5	58.0	14.7
lodging restaurant	3,052	0.9	59.4	18.2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2,981	0.9	59.1	17.5
transportation warehouse	7,886	2.4	59.8	19.8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918	0.3	58.2	9.8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7,849	2.4	57.5	14.4
information communication	10,840	3.3	56.3	14.9
manufacturing	68,841	21.1	59.4	18.9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1,188	0.4	58.2	12.9
Non-Capital Region	133,401	40.9	58.9	15.2
construction	14,970	4.6	58.3	16.0
mining	607	0.2	57.8	17.0
education service	151	0.0	56.3	11.5
finance and insurance	155	0.0	56.8	6.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080	0.3	58.4	12.7
wholesale and retail	9,377	2.9	57.8	16.4
real estate	15,972	4.9	57.3	7.5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2,313	0.7	57.8	10.2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2,104	0.6	58.3	12.0
lodging restaurant	2,749	0.8	58.2	12.9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3,615	1.1	59.3	13.2
transportation warehouse	5,204	1.6	61.0	20.0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2,205	0.7	57.6	9.4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1,851	0.6	59.2	15.0
information communication	1,766	0.5	57.0	21.9
manufacturing	68,185	20.9	59.5	16.9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1,087	0.3	59.4	10.4
Total	326,250	100.0	58.8	16.0

Table 2C. Number of Companies by Year and Ratio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192,849	59.1	58.7	16.6
2007	11,307	3.5	60.6	13.9
2008	11,402	3.5	60.2	14.6
2009	10,886	3.3	60.1	15.0
2010	11,348	3.5	59.9	15.4
2011	11,819	3.6	59.7	16.0
2012	12,320	3.8	59.4	16.4
2013	12,791	3.9	59.2	16.8
2014	13,366	4.1	58.9	17.1
2015	13,797	4.2	58.6	17.1
2016	14,796	4.5	58.3	17.1
2017	15,964	4.9	57.9	17.2
2018	17,368	5.3	57.5	17.2
2019	19,320	5.9	57.3	17.5
2020	16,365	5.0	57.1	18.8
Non-Capital Region	133,401	40.9	58.9	15.2
2007	6,895	2.1	60.8	12.9
2008	6,990	2.1	60.2	13.5
2009	6,920	2.1	60.1	13.7



Table 4. Continued

Category	Nurt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Category	Nurt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Age	Years of Employment				
40 ~ 49	Total	24,613	7.8	45.6	15.7	40 ~ 49	Total	17,200	5.5	45.3	15.0		
	large enterprise	446	0.1	45.8	12.9		large enterprise	184	0.1	46.7	9.9		
	middle market enterprise	3,618	1.1	45.7	17.9		middle market enterprise	1,789	0.6	45.5	17.6		
	small sized enterprise	20,549	6.5	45.5	15.4		small sized enterprise	15,227	4.8	45.3	14.7		
50 ~ 59	Total	70,298	22.3	55.0	15.5	50 ~ 59	Total	43,246	13.7	55.1	14.0		
	large enterprise	3,621	1.2	55.7	14.2		large enterprise	1,881	0.6	55.4	12.3		
	middle market enterprise	11,250	3.6	55.2	18.8		middle market enterprise	5,309	1.7	55.2	18.2		
	small sized enterprise	55,427	17.6	54.9	15.0		small sized enterprise	36,056	11.5	55.0	13.5		
60 ~ 64	Total	40,962	13.0	61.9	16.9	60 ~ 64	Total	31,769	10.1	61.9	15.3		
	large enterprise	1,917	0.6	61.5	17.1		large enterprise	1,099	0.3	61.6	15.5		
	middle market enterprise	6,035	1.9	61.8	21.6		middle market enterprise	3,957	1.3	61.8	20.0		
	small sized enterprise	33,010	10.5	61.9	16.0		small sized enterprise	26,713	8.5	61.9	14.6		
over 65	Total	45,737	14.5	70.7	19.6	over 65	Total	33,669	10.7	70.3	17.5		
	large enterprise	933	0.3	68.9	19.1		large enterprise	422	0.1	69.1	15.9		
	middle market enterprise	4,275	1.4	69.4	23.1		middle market enterprise	2,728	0.9	69.6	22.7		
	small sized enterprise	40,529	12.9	70.9	19.2		small sized enterprise	30,519	9.7	70.4	17.0		
					Total					314,649	100.0	58.8	16.2

Table 5. Number of Business and Business Ratio by age of CEO and sector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189,996	59.0	58.7	16.7		
30 ~ 39	Total	4,036	1.3	36.4	13.8	
	construction	323	0.1	36.6	12.5	
	education service	6	0.0	35.8	4.7	
	finance and insurance	11	0.0	38.6	13.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2	0.0	36.4		
	wholesale and retail	670	0.2	36.8	4.2	
	real estate	992	0.3	35.9	15.1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85	0.0	36.7	11.4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49	0.0	37.7	11.5	
	lodging restaurant	80	0.0	36.2	10.4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79	0.0	37.3	16.9	
	transportation: warehouse	115	0.0	35.7	13.2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5	0.0	33.6	17.6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141	0.0	37.3	3.4	
	information communication	174	0.1	36.5	8.2	
	manufacturing	1,248	0.4	36.4	7.1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46	0.0	35.4	16.8	
	40 ~ 49	Total	25,483	7.9	45.6	14.1
		construction	2,345	0.7	45.5	15.5
		mining	31	0.0	46.1	15.9
education service		222	0.1	45.1	13.9	
finance and insurance		58	0.0	46.6	13.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74	0.0	45.2	5.6	
50 ~ 59		wholesale and retail	4,083	1.3	45.6	11.6
		real estate	5,153	1.6	45.8	14.7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624	0.2	45.0	11.0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129	0.0	45.7	11.7
	lodging restaurant	356	0.1	45.0	15.9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368	0.1	46.2	17.6	
	transportation: warehouse	919	0.3	46.3	15.3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106	0.0	46.1	22.7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1,041	0.3	45.8	7.3	
	information communication	1,808	0.6	45.6	11.0	
manufacturing	8,051	2.5	45.3	11.6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115	0.0	46.6	19.8		
50 ~ 59	Total	72,127	22.4	55.0	12.3	
	construction	5,391	1.7	55.1	15.4	
	mining	147	0.0	53.9	15.8	
	education service	407	0.1	55.7	24.0	
	finance and insurance	280	0.1	55.8	11.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30	0.1	55.5	10.2	
	wholesale and retail	12,735	4.0	54.9	16.8	
	real estate	11,590	3.6	54.8	16.0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2,329	0.7	55.0	10.6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732	0.2	55.0	13.2	
50 ~ 59	lodging restaurant	1,177	0.4	54.7	13.6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1,104	0.3	55.4	18.3	
	transportation: warehouse	2,823	0.9	55.7	17.5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414	0.1	55.8	17.9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3,564	1.1	54.7	9.6	
	information communication	5,168	1.6	54.9	13.6	

	manufacturing	23,552	7.3	55.2	14.4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484	0.2	54.3	17.9
60 ~ 64	Total	41,782	13.0	61.9	10.7
	construction	3,912	1.2	62.1	16.8
	mining	117	0.0	61.9	17.2
	education service	155	0.0	61.7	15.2
	finance and insurance	116	0.0	61.5	12.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98	0.0	61.6	10.2
	wholesale and retail	6,000	1.9	61.9	21.6
	real estate	5,694	1.8	61.9	16.6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1,187	0.4	61.9	13.2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289	0.1	61.9	16.1
	lodging restaurant	459	0.1	62.1	14.5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578	0.2	61.9	15.5
	transportation: warehouse	1,914	0.6	61.7	17.0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218	0.1	61.0	18.5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1,502	0.5	61.9	7.6	
information: communication	2,131	0.7	61.8	16.0	
manufacturing	17,110	5.3	61.9	17.1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272	0.1	61.9	18.1	
over 65	Total	46,568	14.5	70.7	15.8
	construction	4,734	1.5	70.5	19.5
	mining	132	0.0	71.0	18.4
	education service	152	0.0	71.4	23.1
	finance and insurance	65	0.0	68.0	16.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76	0.1	73.0	9.4
	wholesale and retail	6,578	2.0	70.6	17.0
	real estate	8,037	2.5	71.7	19.3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1,059	0.3	69.9	16.9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301	0.1	70.3	17.8
	lodging restaurant	929	0.3	72.1	18.2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800	0.2	71.0	19.8
	transportation: warehouse	2,075	0.6	70.8	19.7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164	0.1	70.2	22.6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1,509	0.5	70.1	15.6	
information: communication	1,322	0.4	70.0	18.0	
manufacturing	18,279	5.7	70.5	21.0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256	0.1	70.9	14.1	
30 ~ 39	Non-Capital Region	132,007	41.0	58.9	15.2
	Total	3,406	1.1	36.2	13.4
	construction	491	0.2	35.7	14.9
	mining	28	0.0	36.4	17.0
	education service	11	0.0	37.6	9.5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50	0.0	34.9	7.2
	wholesale and retail	304	0.1	35.4	16.7
	real estate	602	0.2	35.5	6.2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90	0.0	36.6	8.4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29	0.0	37.6	11.3
	lodging restaurant	93	0.0	36.8	10.2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79	0.0	34.8	11.6
	transportation: warehouse	120	0.0	35.9	16.1

40 ~ 49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52	0.0	35.8	5.4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47	0.0	37.4	13.2
	information: communication	53	0.0	35.7	26.8
	manufacturing	1,324	0.4	36.4	16.1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33	0.0	34.8	6.9
	Total	17,659	5.5	45.3	14.8
	construction	2,283	0.7	45.1	14.6
	mining	81	0.0	45.1	19.4
	education service	33	0.0	46.4	12.1
	finance and insurance	25	0.0	48.9	12.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29	0.0	46.1	11.5
	wholesale and retail	1,559	0.5	45.4	16.6
	real estate	2,751	0.9	45.3	7.4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233	0.1	45.3	8.2
50 ~ 59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154	0.0	45.0	9.1
	lodging restaurant	513	0.2	45.1	11.3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465	0.1	45.4	14.5
	transportation: warehouse	512	0.2	45.4	17.9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309	0.1	44.9	6.9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208	0.1	45.5	14.3
	information: communication	207	0.1	44.7	12.9
	manufacturing	8,070	2.5	45.3	17.9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127	0.0	45.2	7.4
	Total	44,269	13.7	55.1	13.9
	construction	5,009	1.6	55.0	14.3
	mining	204	0.1	54.5	14.6
	education service	30	0.0	52.8	10.1
	finance and insurance	97	0.0	55.4	4.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421	0.1	55.2	10.2	
wholesale and retail	3,002	0.9	54.7	14.6	
real estate	5,733	1.8	54.9	6.9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972	0.3	54.7	8.3	
60 ~ 64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1,005	0.3	54.9	11.5
	lodging restaurant	849	0.3	55.1	12.7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1,128	0.4	54.7	12.3
	transportation: warehouse	1,415	0.4	55.0	18.0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879	0.3	55.5	10.1
	professional scientific service	668	0.2	55.2	13.6
	information: communication	837	0.3	55.5	20.7
	manufacturing	21,650	6.7	55.2	15.8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370	0.1	54.7	10.8
	Total	32,359	10.0	61.9	15.3
	construction	3,033	0.9	61.8	17.2
	mining	162	0.1	62.3	20.2
	education service	50	0.0	61.0	12.1
	finance and insurance	26	0.0	61.4	5.2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57	0.1	62.1	15.8	
wholesale and retail	2,131	0.7	61.8	16.5	
real estate	3,167	1.0	61.8	7.7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413	0.1	61.1	13.0	



over 65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499	0.2	61.7	12.5
	lodging/restaurant	499	0.2	61.7	13.6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855	0.3	61.9	13.5
	transportation: warehouse	1,233	0.4	61.9	17.9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591	0.2	61.6	10.4
	professional/scientific service	404	0.1	61.7	14.4
	information: communication	353	0.1	61.7	27.5
	manufacturing	18,448	5.7	62.0	16.2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238	0.1	61.8	9.6
	Total	34,314	10.7	70.3	17.4
	construction	3,829	1.2	70.8	18.9
	mining	126	0.0	70.9	16.2
	education service	26	0.0	71.6	12.3
	finance and insurance	6	0.0	68.0	4.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29	0.1	72.0	15.7
	wholesale and retail	2,294	0.7	70.0	18.6
	real estate	3,338	1.1	70.7	8.7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support and rental service	588	0.2	68.8	12.3
	water, sewage and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ycling	397	0.1	70.1	13.8
	lodging/restaurant	764	0.2	70.6	14.1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1,066	0.3	70.4	13.5
	transportation: warehouse	1,885	0.6	70.7	23.7
	electricity, gas, steam, air conditioning suppliers	353	0.1	70.5	9.3
	Professional/scientific service	500	0.2	70.1	18.4
	information: communication	285	0.1	68.6	25.5
	manufacturing	18,266	5.7	70.1	18.7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businesses	302	0.1	72.1	12.4
	Total	322,003	100.0	58.8	16.1

Table 6과 같이 승계 완료기업은 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승계완료 비율은 3.0%로 수도권(3.8%) 보다 낮은 수준이며,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승계완료 비율이 5.0%로 중소기업(6.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기업승계가 더딘 이유는 세금·사후 요건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설법인 설립 후 매출 이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6. Number of Company and Ratio per Management Forms (unit: company, %, age, year)

Category	Number of Companies	ratio	Representative (Average)		
			Age	Years of Employment	
Capital Region	182,488	58.9	58.8	16.9	
founder	Total	48,569	15.7	62.7	15.0
	large enterprise	112	0.0	58.0	6.3
	middle market enterprise	2,140	0.7	62.7	15.4

succession	small sized enterprise	46,307	14.9	62.7	15.0
	Total	11,842	3.8	56.4	29.0
	large enterprise	21	0.0	56.1	39.3
	middle market enterprise	1,037	0.3	54.5	32.7
M&A	small sized enterprise	10,784	3.5	55.5	28.6
	Total	10,518	3.4	61.4	19.4
	large enterprise	42	0.0	59.5	10.0
	middle market enterprise	825	0.3	63.4	25.1
partnership	small sized enterprise	9,651	3.1	61.2	18.9
	Total	190	0.1	56.1	18.4
	middle market enterprise	23	0.0	60.6	24.5
professional manager	small sized enterprise	167	0.1	55.5	17.5
	Total	19,604	6.3	58.4	20.4
	large enterprise	2,158	0.7	59.1	19.1
	middle market enterprise	6,717	2.2	58.2	22.5
no response	small sized enterprise	10,729	3.5	58.3	19.3
	Total	91,761	29.6	56.9	15.3
	large enterprise	4,507	1.5	58.1	14.1
	middle market enterprise	14,449	4.7	56.4	18.4
	small sized enterprise	72,819	23.5	57.0	14.7
Non-Capital Region		127,570	41.1	59.0	15.4
founder	Total	36,270	11.7	63.0	13.7
	large enterprise	58	0.0	63.6	9.1
	middle market enterprise	1,225	0.4	64.3	16.3
	small sized enterprise	34,987	11.3	62.9	13.6
succession	Total	9,383	3.0	54.5	25.6
	large enterprise	7	0.0	66.6	32.5
	middle market enterprise	634	0.2	55.6	31.9
	small sized enterprise	8,742	2.8	54.4	25.1
M&A	Total	8,113	2.6	61.7	18.8
	large enterprise	28	0.0	64.5	22.9
	middle market enterprise	404	0.1	63.9	23.9
	small sized enterprise	7,681	2.5	61.6	18.5
partnership	Total	174	0.1	61.2	17.8
	middle market enterprise	17	0.0	66.4	26.1
	small sized enterprise	157	0.1	60.6	16.9
professional manager	Total	13,354	4.3	59.1	19.3
	large enterprise	953	0.3	59.6	16.0
	middle market enterprise	3,659	1.2	59.3	22.1
	small sized enterprise	8,742	2.8	59.0	18.5
no response	Total	60,276	19.4	56.8	13.5
	large enterprise	2,502	0.8	57.6	12.6
	middle market enterprise	7,956	2.6	56.9	17.5
	small sized enterprise	49,822	16.1	56.8	12.9
Total		310,058	100.0	58.8	16.3

국제결제은행(BIS)은 “현금·현금성자산 + 단기투자 자산 + 매출액 - 영업비용 - 유동부채 - 이자비용”의 합이 0 미만인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정의한다. 매출 감

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위험기업 비중은 국가별로 약 20~60%(중간값 40%)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숙박·음식업에서 2020년 3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였고, 유동자산은 연간 고정비용과 이자비용 대비 약 10%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업 유동성 경색은 파산을 유발하고 신용 불이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7과 같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위험기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2019년보다 약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5.4%p, 중견기업 0.4%p).

Table 7. Number and ratio of risky companies by year and size (unit: company, %)

Category	Total	Sum (C+A+B)		Small Sized Enterprise(A)		Middle Market Enterprise(B)	
		number of companies	ratio	number of companies	ratio	number of companies	ratio
2004	11,061	6,523	59.0	5,999	54.2	524	4.7
2005	11,977	7,216	60.2	6,449	53.8	515	4.3
2006	13,432	7,874	58.6	7,099	52.9	504	3.8
2007	18,213	9,966	54.8	9,117	50.1	517	2.8
2008	18,406	10,055	54.7	9,192	49.9	622	3.4
2009	17,834	9,518	53.4	8,629	48.4	600	3.5
2010	18,758	9,936	53.0	8,993	47.9	671	3.6
2011	19,765	10,472	53.0	9,338	47.2	813	4.1
2012	20,674	10,835	51.9	9,400	45.0	1,128	5.4
2013	21,584	11,191	50.9	9,705	44.1	1,199	5.5
2014	23,115	11,417	49.4	9,881	42.7	1,267	5.5
2015	24,174	11,389	47.1	9,771	40.4	1,362	5.6
2016	25,919	10,853	41.9	9,082	35.0	1,568	6.0
2017	27,891	12,365	44.3	10,500	37.6	1,681	6.0
2018	30,055	13,085	43.5	11,134	37.0	1,764	5.9
2019	32,778	12,467	38.0	10,471	31.9	1,775	5.4
2020	27,441	12,105	44.1	10,241	37.3	1,592	5.8
Total	363,677	177,297	48.8	154,991	42.6	18,132	5.0

#### 4.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4.1 가설에 관한 실증분석

장수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업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4년 중소기업부에서 짧은 산업화와 역사 등을 감안해 '기업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기업'을 통계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기업의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설정에는 많은 이견이 있어 장수기업의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먼저 Fig. 1과 Fig. 2에서 장수기업 현황을 살펴보

면, 장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 영업이익 등에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수기업(업력 30년 이상)의 경영성과는 신생기업(업력 10년 미만) 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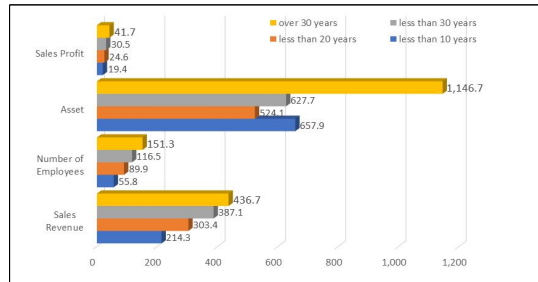


Fig. 1. Business performance per company history: Capital Region (unit: 100 million won, number of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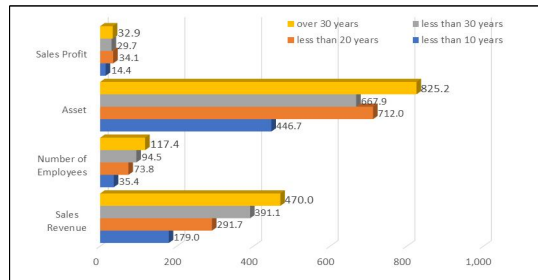


Fig. 2. Business performance per company history: Non-Capital Region (unit: 100 million won, number of people)

'장수기업이 많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매출금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등의 ① 수준·증가율 ② 수준·증가율의 분포, ③ 매출 증가/감소의 신용등급을 분석했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연간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정보를 이용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 기간 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했다. 모형설계에 있어서 종속변수로 '매출액(전년동기대비)'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고용(종업원 수, 전년동기대비), R&D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100),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영업이익(전년동기대비), 이

자비용(전년동기대비)로 설정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터미변수(장수기업 여부, 대표자 성별, 기업규모, 대표자 연령, 기업업력,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등)를 설정하였다. SAS의 Stepwise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대부분 변수에서 예상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동시에 만족하였다. 이는 장수기업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such as sales, number of employees, and operating profit**

Variable Name (in comparison to the year before)	Total		Capital Region		Non-Capital Region		Remarks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nstant term	1.1822	0.0009	4.0589	<.0001	-2.5678	<.0001	-
number of employees(+)	0.0494	0.4062	0.0576	0.4089	0.1802	0.1116***	non-capital region
operating profit(+)	0.0015	<.0001*	0.0026	<.0001*	0.0009	<.0001*	capital region
asset(+)	0.4609	<.0001*	0.2474	<.0001*	1.1372	<.0001*	non-capital region
borrowing (+)	0.0866	<.0001*	-0.0295	<.0001*	0.0607	<.0001*	non-capital region
loans (+/-)	0.0826	<.0001*	0.1175	<.0001*	-0.1931	<.0001*	non-capital region
rental fee (+/-)	0.0050	<.0001*	0.0093	<.0001*	0.0003	0.7625	non-capital region
R&D ratio (+/-)	-0.0412	<.0001*	-0.0368	0.0009*	-0.2476	<.0001*	capital region
interest expense (+/-)	0.0040	<.0001*	0.0053	<.0001*	0.0053	<.0001*	Both
old companies (0,1)	-2.7446	0.0022*	-4.5635	0.0003*	-0.5165	0.6624	

Note: \* 1% significance, \*\* 5% significance, \*\*\* 10% significance

**4.2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는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 내 특화산업 형성 및 지역 환경 개선, 관광산업 발전 기여, 지역 사회 상생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 유지로 일자리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은 일자리 상실 문제로 이어지며, 혹자 기업임에도 고령화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폐업기업의 61.4%는 당기 순이익이 흑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15]. 또한, 폐업기업의 대표자 연령에서 60대 이상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기업 대표자의 분포는 해마다 평균 0.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승계는 기업의 폐업을 막고 더 나아가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able 9처럼 국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고용인원은 전체 중소기업제조업보다 12배 높으며, 매출액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16]에 의하면, 중소기업제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16명으로 나타났으나 장수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18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28억 원으로 중소기업제조업의 평균 43억 원보다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Status of prestigious and old-companie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Unit: 100 million won, number of people)**

Category	Founding Year	Sales Revenue	Number of Employees
COMMAX	1968 (53)	1,433	150
Dong-A Pencil Co., Ltd.	1946 (75)	293	109
Maeil Foods Co., Ltd.	1954 (67)	335	56
PNboongnyun Co., Ltd.	1954 (67)	618	188
Kwangshin Machinery Co., Ltd.	1967 (54)	482	156
Samwool Metal Industry Co., Ltd.	1970 (51)	526	261
Sank Electronics Industry Co., Ltd.	1969 (52)	350	137
Korea Cosmetics Manufacturing Co., Ltd.	1962 (59)	882	143
Hive Shin Bolt Industrial Co., Ltd.	1964 (57)	301	92
Mirae N Co., Ltd.	1948 (73)	1,931	552
Namsung., Ltd.	1966 (55)	783	72
Sanyoung Electric Industrial Co., Ltd.	1963 (58)	200	79
CJ Lime Co., Ltd.	1963 (58)	128	29
Korea Maritime Technology Co., Ltd.	1969 (52)	124	116
Eagle Safes Manufacturing	1973 (48)	299	201
EdisonInno Co., Ltd.	1969 (52)	196	44
general Maritime Co., Ltd.	1967 (54)	308	101
Korea Fire Protection UBS Co., Ltd.	1946 (75)	155	252

Note 1: Sales are based on the average of the past five years as of 2019,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s as of 2019.  
 2: The parentheses ( ) following the year of establishment indicate the company's history.  
 Source: Small sized Enterprise Federation (2020) Press release

또한,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장수기업들도 고용률이 최대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로 삼진어묵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판로

를 넓히면서 1년 사이에 50여명 내외이던 직원 규모를 250명 수준으로 증대했다[17]. 그리고 목수로 시작해 현재 목재창호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성남기업 또한 현재는 300억의 매출을 올리고 90여개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해외 기업들도 기반을 둔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기업 Cloose는 인구 약 2만 명이 있는 소도시 하이거에 본사를 두고 100년 가까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약 10%를 부양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연계, 훈련지원 등으로 지역인재 양성도 하고 있다[19]. 또한, 독일 가족사업재단[20]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독일 내 고용인구의 58%를 가족사업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내 고용인구의 65%를 가족기업이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 GDP의 약 64%(약 13조 달러)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78%를 책임지고 있다[21].

둘째, 기업승계 및 장수기업은 지역 내 특화산업을 형성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 부산소재 장수기업들로 부산어목의 특산물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법인인 (사)부산어목전락식품사업단<sup>1)</sup>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원 사업단에 선정되어 부산 소재 장림피혁수산물단지 내에 연면적 2,867㎡, 지상 3층의 생육공장을 준공하고 단지 내 체협·관광형 어목공장을 설립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였다. 또한 어목공장 입주가 많은 단지를 부산시에서 수산물특화단지로 전환하여 노후 폐수처리장을 개선하고 전략식품 개발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22].

셋째, 지역 장수기업은 사업 관련 박물관 설립, 산업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 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73년 창립한 소주 제조 회사 무학은 마산 내 본사 건물에 세계주류박물관인 '굿데이 뮤지엄'을 개관하고 세계 술 전시 및 지역 과거 양조장 재현과 제조 체험 등을 소개하여 마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23]. 또한, 창원시는 평균 업력 80년의 지역 장수기업들을 산업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등 장수기업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넷째, 장수 중소기업은 사회 환원 활동, 지역 관광 상품 활성화 등 지역 사회 상생활동으로 지역경제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주)코맥스는 2007년 진행한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을 시작으로 꾸준히 후원금과 쌀을 후원하고 있으며[24], 창립 115년 역사를 지닌 장수기업 몽고식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 본부에 후원제품을 전달[25]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오이타현 유후인 온천여관은 지역 농산물을 자체 브랜드화하여 지역 내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텐에이촌 온천여관도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지역 내 소비로 특산품 수요를 창조하고 있다[26].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혁신에 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와 연관된 지역 중소기업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장수기업(또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과 매출액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성적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기업승계와 장수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 고용, 자산,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수기업의 경영성과는 타 기업보다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30년 이상 기업의 자산, 매출, 고용이 10년 미만 기업의 2~3배 규모였다. 즉, CEO 은퇴에 따른 기업 영속성 단절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업력 뿐 아니라, '21.6월 기준 국내기업 CEO 평균 연령은 58.8세이며 평균 업력은 16.1년으로 나타나 CEO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승계기업과 장수기업은 일자리문제 해결 및 고용창출, 지역 내 특화산업 형성 및 지역환경 개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 상생활동의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CEO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여세는 특례 적용분이 상속 시

1) (주)늘푸른바다(1963년 창립), 삼진식품(1953년 창립), 미도식품(1963년 창립), 영진식품(1966년 창립), 부산식품(1984년 창립), (주)대광F&C(1999년 창립) 등.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등 효과가 미미하므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전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Joint state affairs review and coordination meetings of Relevant ministries. (November 2020). The ‘pot economy’ with a strong back-innovative small middle market enterprise growth strategy.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ational Statistics Portal.
- [3] M. Y. Lee & D. H. Lee. (2018). An Empirical Study on Long-Term Performance of Family Succession Companies. *Korean Society of Commerce Education*, 32(3), 93-121.  
DOI : 10.34274/krabe.2018.32.3.005
- [4] S. C. Shin. (2018). The current status of long-lived companies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Small sized enterprise researcher.
- [5] H. Bae. (2013). *Three conditions for long-lived companies, regional base + competitiveness + transformation*. BDI Policy Focus (230),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6] D. H. Cho. (2019). Characteristics of long-lived SMEs and analysis of longevity factor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7] S. C. Hong, S. C. Shin & B. H. Jo.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mall Sized Enterprise Success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Institute.
- [8] Miller and Le Breton-Miller. (2005). *Managing for the Long Run: Lessons in Competitive Advantage from Great Family Business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 [9] J. W. Lee, Y. J. Ma & S. C. Jeong. (2010). Family Succession and Competitiveness of Family Enterprises: SL Cas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4).
- [10] J. H. Han.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long-term survival of companies: based on studies and cases of long-lived companies domestic and abroad. *Management Consulting Research*, 13(1).
- [11] H. S. Jung. (2011). *Status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Succession in Japan*. BOK Research.
- [12] B. S. Kim & M. S. Han.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Successor Characteristics on Self-Efficacy, Management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during Family Business Succession. *Korean Association for Commercial Education*, 31(5).
- [13] Y. H. Nam & S. J. Moon. (2007). Performance Analysis of KOSDAQ Family-Owned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9(1).
- [14] B. S. Cho & B. H. Cho. (2007). Policy Tasks for Facilitating Management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orean Small Business Association*, 29(4).
- [15] Jap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White Paper 2020 Edition”, 2020.; “Small and Medium Business White Paper 2021 Edition”, 2021.
- [16]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Small and Medium Businesses Federation. (2020). 「Report on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of 2019」.
- [17] Dynamic Busan. (2015). 63 years of craftsmanship... Pride of Busan fish cakes.
- [18] Economy Chosun. (2013). Exploring the case of family business ② Seongnam Enterprises: Three generations of ‘Woottuk’, a 30 billion-won company starting from a woodworking shop, armed with the craftsmanship of Daemok.
- [1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09. 3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ment of Introduction of Reputable Longevity Company Confirmation System.
- [20] According to the website of the Family Business Foundation, *Stiftung Familienunternehmen* is a foundation that supports family business in Germany.
- [21] FEUSA. (2018). 2018 FEUSA Family Business Survey Final Report, 2018.7.
- [22] Busan Ilbo. (2021). Busan is emerging as a hub for production of processed seafood.
- [23] Yonhap News. (2015) The world getting drunk”... Muhak World Liquor Museum Opened”; JoongAng Ilbo (2016), “Muhak Liquor Museum’s ‘Good Day Museum’ Growing as a Landmark.
- [24] COMMAX PR Center News. (2018). Commax, Sharing Rice of Hope to Welfare Facilities in Seongnam.
- [25] Nate News. (2021). [Changwon News] Sungwoo Co., Ltd. sponsors 5 million won in 5 local children’s centers, etc.

- [26] Yasumoto. (2016). Endogenous Regional Promotion through Tourism, 「Longevity Company」 - with 「Omaru Asunaro Chief」 as an example -, Journal of the Japan International Tourism Association, No. 23.

김 희 재(Hee Jae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수료)
- 2018년 5월 ~현재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혁신팀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지역경제, 중소기업, 지역정책
- E-Mail : kimhj\_07@naver.com

곽 동 철(Dong Chul Kwak)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경제학석사)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경제학박사)

- 2020년 9월~현재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경기변동, 지역경제, 중소기업, 지역정책, 협동조합
- E-Mail : korea7659@hnu.kr